

이 선수들이 1위? 낯설다... 개막 초반 프로야구 이색 순위표

문보경 타율 1위·한유섭 9경기서 타점 17개 수확
류캐넌, 13이닝 3실점하고도 2패...박찬호, 5실책

의외의 인물들이 예상 밖 호성적으로 개인 기록 상위권을 장식하는 것은 표본이 적은 시즌 초반 느낄 수 있는 묘미 중 하나다. 타율 1위는 LG 트윈스 문보경이 지키고 있다. 문보경은 개막 후 9경기에서 타율 0.464(28타수 13안타)를 뽑아냈다. 출루율 1위(0.545)도 문보경이다. 2019년 LG에 지명된 문보경은 1군 데뷔 첫 해였던 지난해 타율 0.230, 8홈런 39타점을 기록했다. 전반기 타율 0.270으로 선전했지만 후반기 타율 0.191로 고전했다. 실책을 발판 삼아 겨우내 더 많은 땅을 흘린 문보경은 더 강하게 돌아왔다. 시즌 초반부터 연일 맹타 행진을 벌이며 패조의 스타트를 끊고 있다.

홈런 순위도 이색 인물이 최상단에 올라있다. '타격 기계' 김현수(LG)가 그 주인공이다. 정교한 타격 능력이 부각된 김현수는 홈런보다 최다 안타, 타율 1위 경쟁이 더 익숙하다. 그러나 올해는 지난 5일 키움 히어로즈전을 시작으로 3경기 연속 홈런포를 쏘아 올리는 등 개막 9경기에서 4개의 아치를 그려 홈런 1위에 자리잡았다. 지난해까지 한 시즌 최다 세이브가 7개(2021년)였던 김택형은 올해 벌써 5세이브를 수확, 세이브 공동 1위를 달리고 있다. 개막 6경기에서 한 점도 내주지 않고 5세이브를 챙긴 김택형의 잔물투에 힘입어 SSG도 개막 9연승을 질주 중이다. 한유섭(SSG)도 놀라운 타점 수확 능력을



선보이며 팀의 연승 행진에 불을 붙였다. 한유섭은 9경기에서 무려 타점 17개를 쓸어 담았다. 타점 2위 김현수(9개)와 비교해도 거의 두 배 차이가 날 정도다. 시즌 타율 0.444를 기록 중인 한유섭의 득점권 타율은 0.571까지 치솟는다. 롯데 자이언츠의 새 외국인 투수 찰리 번즈는 3경기에 등판해 무려 24개의 삼진을 잡아내 놀라운 탐삼진 능력을 입증했다. 벌써 2패를 떠안아 최다 패전 아픔을 나누



고 있는 이름들도 낯설다. 벌써 5명이 나란히 2패씩을 기록했는데 지난해 다승 공동 1위(16승)를 달성했던 데이비드 류캐넌(삼성 라이온즈)도 이 중 한 명이다. 지난해 5패만 당했던 류캐넌은 올해 2경기에 등판해 13이닝을 3실점으로 틀어 막고도 모두 패전의 멍에를 썼다. '다팬딩 챔피언' KT 위즈의 선발 투수 오드리사머 데스파이네, 고영표도 나란히 2패씩으로 출발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유격수 박찬호는 달갑지 않



은 선수를 차지하고 있다. 개막 9경기에서 5실책을 기록, 최다 실책 1위다. SSG 팀 전체 실책(2개)보다 3개가 많다. 현재 페이스라면 박찬호의 시즌 총 실책은 훌쩍 60개를 넘는다. 물론 시간이 지날수록 안정을 찾겠지만 박찬호와 KIA에 썩 달갑지 않은 출발임은 분명하다. 반면 지난해 유격수와 2루수를 오가며 최다 실책 1위(35개) 불명예를 썼던 김해성(키움 히어로즈)은 올해 2루수로 정착, 아직 하나의 실책도 기록하지 않고 있다.

'1골 1도움' 수원FC 이승우, K리그1 9라운드 MVP

K리그2 MVP는 대전 조유민

최근 몰오른 골 감각을 자랑 중인 프로축구 K리그1 수원FC의 이승우가 라운드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 10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김천 상무와 경기에서 1골 1도움으로 수원FC의 3-2 승리를 이끈 이승우를 하나원큐 K리그1 2022 9라운드 MVP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승우는 김천과 경기에서 전반 추가시간 왼쪽 측면에서 빠른 돌파 후 김현의 머리를 향해 정확한 크로스를 올리며 도움을 기록했다. 이어 후반 9분 코너킥 상황에서 헤더 패스를 오른발 슈팅으로 마무리하며 결승골을 터트렸다. 시즌 첫 멀티 공격포인트다. 이로써 이승우는 지난 6라운드 이후 개인 통산 두 번째 라운드 MVP에 올랐다. K리그1 9라운드 베스트 매치는 9일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치러진 성남FC와 전북 현대의 경기고 뽑혔고, 이날 3연승을 이끈 전북이 베스트 팀에 선정됐다. 주간 베스트11 공격수에는 이승우를 비롯해 주민규(제주), 엄원상(울산)이 올랐다.



미드필더는 바로우(전북), 팔로세비치(서울), 아마노(울산), 문선민(전북)이, 수비수에는 오스마트(서울), 박진섭(전북), 김건웅(수원FC)이 이름을 올렸다. 골키퍼는 송병근(전북)이다.

2부리그인 K리그2 10라운드 MVP는 대전 하나시티즌의 조유민이다. 조유민은 9일 서울이랜드와 경기에서 멀티골로 대전의 2-1 승리를 이끌었다. 이 경기는 K리그2 10라운드 베스트 매치에 선정됐고, 베스트 팀은 부천FC가 뽑혔다.

마스터스 8위 임성재, RBC 헤리티지 파워랭킹 10위

임성재(24)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RBC 헤리티지(총상금 800만 달러·우승상금 144만 달러)에서 마스터스의 아쉬움을 씻는다. 임성재는 오는 14일(한국시간)부터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힐턴 헤드의 하버타운 골프 링크스(파71)에서 열리는 RBC 헤리티지에 출전한다. RBC 헤리티지는 1969년부터 힐튼 헤드 아일랜드에서 열리고 있으며, 마스터스 토너먼트 다음주에 열리는 무대이다. 대회는 72홀로 열리며, 36홀 이후 공동 65위까지 3라운드에 진출한다. 지난주 마스터스에서 마지막 라운드의 부진으로 공동 8위에 머물렀던 임성재는 다시 한 번 도전장을 던졌다. 임성재는 지난해 이 대회에서 공동 13위에 오른 경험이 있다. 임성재는 대회를 앞두고 파워랭킹에서 10위에 이름을 올렸다. 대회 홈페이지는 "임성재는 지난해 이 대회에서 13위에 올랐고, 마스터스 1라운드에서 1위에 오르는 등 8위로 대회를 마쳤다. 이번 시즌 8개 대회에서 '톱20'에 올랐다"고 소개했다. 이번 대회에는 세계랭킹 상위 30명 중 15명의 선수가 출전한다. 랭킹 2위 콜린 모라코와(미국)를 비롯해 5위 캐머런 스미스(호주), 6위 패트릭 캔틀레이, 8위 저스틴 토마스, 9위 더스틴 존슨(이상 미국) 등 톱10 선수 5명이 포진해 있다. 김시우(27)와 강성훈(35), 이경훈(31)도 상위권 진입을 노린다. 2018년 이 대회에서 준우승에 올랐던 김시우는 4년 만에 다시 도전장을 던졌다. 강성훈은 2017년 이 대회서 공동 11위에 오른 바 있다.

케이타, KB손해보험 진심에 동요...잔류 관심

KB손해보험, 이탈리아 구단과 계약해지·바이아웃 등 해법 놓고 고민중

"2년 동안 우리 선수들과 친해져서 헤어지기 힘들거예요." 두 시즌 동안 KB손해보험에서 뛰던 케이타는 KBO리그 역대 최고의 외국인 선수 중 한명이다. KB손해보험은 2020~2021시즌을 앞두고 말리 출신의 경력이 일천한 선수들 데려왔다. 그때만 해도 케이타가 리그를 호령할 만한 선수인지는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케이타는 빠른 몸놀림과 높은 타점에서 뽑어져 나오는 공격력으로 리그를 평정하기 시작했고, 2시즌 연속 득점왕에 올랐다. 2021~2022시즌에는 무려 1285점을 기록해 V-리그 한 시즌 최다 득점 기록을 새로 썼다. 케이타는 이번 시즌 KB손해보험을 사상 첫 챔피언결정전 진출로 이끌었다. 하지만 대한항공에 미세한 차이로 패배 준우승에 머물렀다. 케이타의 미진 못한 공격력은 대한항공을 베팅 끝으로 몰기도 했다. 케이타는 패배 직후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곧바로 케이타의 잔류 여부에 리그와 배구팬의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케이타는 이미 시즌 중에 이탈리아의 한 구단과 계약을 마친 상태였다. KB손해보험이 시즌 중에 수차례 다음 시즌에 도 뛰어달라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케이타는 어릴 때부터 동경했던 이탈리아 구단



의 러브콜을 뿌리치지 못했다. 결국 더 큰 무대로 가기 결정했다. KB손해보험은 계속해서 케이타의 잔류를 진심으로 설득했고, 케이타 역시 마음이 동요했다. 이탈리아 구단과의 문제만 해결된다면 KB손해보험에 남을 수 있는 여지를 보였다. KB손해보험의 관계자는 "현재 이탈리아 구단과 케이타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케이타도 2년 동안 우리 선수들과 정이 많이 들어서 한국에 남고 싶어하는 거 같다"고 말했다. 구단은 계약해지, 바이아웃 등 여러 해법을 놓고 고민중이다. 케이타가 계속 KB손해보험에서 뛰려면 15일까지 외국인 선수 트라이아웃 참가 신청서를 내야 한다. 구단 관계자는 "트라이아웃 참가 접수를 한다면, 협상할 여지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그쪽 구단에서 케이타를 포기할 수 없다고 한다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탬파베이 레이스의 최지만(오른쪽)이 12일(현지시간) 미 플로리다주 세인트피터즈버그의 트로피카나 필드에서 열린 2022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와 경기 2회 말 역전 3점 홈런을 치고 동료들과 기쁨을 나누고 있다.

최지만, 시즌 5경기 만에 홈런포 가동

오클랜드전, 홈런 포함 3타수 3안타 3타점 폭발

최지만(31·탬파베이 레이스)이 시즌 첫 홈런포를 가동하며 뜨거운 타격감을 과시했다. 최지만은 13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세인트피터즈버그 트로피카나필드에서 열린 2022 메이저리그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와 경기에서 3번 타자 1루수로 선발 출전, 홈런 하나를 포함해 3타수 3안타 1볼넷 3타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성적은 13타수 8안타(타율 0.615)다. 1회 첫 타석에서 볼넷을 골라낸 최지만은 팀이 2-3으로 따라가던 2회 1사 1, 2루 두 번째 타석에서 상대 선발 에덤 울러와 마주쳤다. 최지만은 초구 체인지업을 지켜본 뒤 2구째 싱커를 통타, 우중간 펜스를 넘어가는 역전 스리런 아치를 그렸다. 최근 4경기 연속 안타이자 올해 5경기 만에 나온 시즌 첫 홈런이다. 불꽃은 최지만의 방망이는 쉬지 않았다. 4

회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는 좌선상 2루타를 날렸다. 6회 무사 3루에서는 유격수 방면 내야 안타로 출루했지만, 3루 주자가 움직이지 않아 타점은 추가하지 못했다. 매 타석 출루하며 존재감을 과시한 최지만은 7-7로 맞선 7회말 2사 후 대타 안디 디아즈와 교체, 이날 경기를 마쳤다. 상대가 마운드에 좌완 커비 스니드를 올리자 벤치는 최지만 대신 우타자 디아즈를 선택했다. 그러나 디아즈는 땅볼로 물러났다. 최지만은 올해 시범경기에서 타율 0.111(18타수 2안타)에 그치고, 장타는 하나도 때려내지 못했다. 타격 컨디션에 대한 우려의 말이 나오기도 했으나 막상 시즌이 시작하자 언제 그랬냐는 듯 뜨거운 방망이를 과시하고 있다. 한편, 탬파베이는 연장 10회 승부 끝에 9-8 승리를 거뒀다.

뉴시스

두 달 만에 복귀한 조코비치, 첫 판 탈락 수도

몬테카를로 마스터스 2회전 패배

두 달 만에 돌아온 테니스 스타 노박 조코비치(세르비아)가 첫 판에서 자취를 감췄다. 조코비치는 13일(한국시간) 모나코에서 열린 남자프로테니스(ATP) 몬테카를로 마스터스 2회전에서 알레한드로 다비도비치 포키나(스페인)에게 세트스코어 1-2(3-6 7-6(5) 1-6)로 패했다. 조코비치가 올해 경기에 선을 보인 것은 지난 2월 두바이 듀티프리 챔피언십 이후 두 달만이자 두 번째다. 1회전을 부진승으로 통과한 조코비치는 클레이코트에서 치러진 이날 자신의 실질적인 첫 경기에서 포키나의 공세에 끌려다니다가 맥없이 무너졌다.



조코비치는 "상대가 나보다 더 나은 선수였다. 나는 경기 내내 밧줄에 매달려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쉽지 않은 일전이었다고 털어놓았다. 3세트 들어서는 완전히 체력이 바닥난 상태였다고도 덧붙였다.